

근로복지공, '코로나19 백서' 발간 4개 부문 감염병 대응역량 종합

코로나19 개요·대응체계 등 구성
고용부·지자체, 외부·소속기관 배포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13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여 '함께 이겨낸 코로나19, 미래를 향한 기록'이라는 주제다.

백서는 ▲코로나19 개요 ▲코로나19 대응체계 ▲코로나19 COMWEL 방역 ▲공단병원별 코로나19 대응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시 지역주민과 직원의 안전한 병원 이용을 위해 전국 10개 공단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바 있다. 연인원 10만982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인 감염병 전담병원 8개소(744병상)를 운영해 확진자 12만3552명을 치료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환자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근로복지공단

가 폭증한 대구지역에 의사·간호사 등 대규모 의료지원 인력을 파견해 지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아울러 재택치료 협력병원 참여, 백신접종 위탁운영,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등 국가 재난상황하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단은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기까지의 감

염병 대응역량을 종합했다"며 "의료현장의 땀과 열정, 눈물과 감동으로 뭉클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코로나19 백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서는 고용노동부·지자체 등 외부기관과 소속기관에 배포했다. 또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럼피스킨 감염 소 살처분... 차단방역 강화

중수본, 전국 모든 소에 접종 완료
위험도 따라 두수 살처분 정책 유지

소 럼피스킨 백신 완료 등에 따라 앞으로 럼피스킨 감염 소만 살처분한다. 대신, 향후 2주간 이동 제한 등 차단방역이 강화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날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가축만 선별 살처분한다.

중수본은 지난 10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온 하강으로 모기 등 바이러스 매개 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럼피스킨 발생은 감소 추세다. 지난달 19~25일까지 첫주 47건 발생했으나, 2주차(10.25~11.1) 28건, 3주차(11.2~8) 12건, 4주차에 접어든 9일부터 이날까지 4건 발생한 상황이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럼피스킨 살처분 정책 전환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분이 실시된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대신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한편, 중수본은 최근 경남 한 지역에서 희석액만 배부돼 이른바 '물백신'이 접종된 사례와 관련해 추가된 유사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백신 효과와 관련해 해외, 특히 유럽지역의 경우 백신으로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종식돼 효과가 검증됐다고 했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전파 관련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9월 중순경 충북 서산에 유입됐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서해안으로 번졌거나, DMZ를 통한 국내 유입, 축산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 14개월째 감소

고용부 '10월 노동시장동향'

전년동월비 1.3% 줄은 245만명
인구 감소, 도소매 분야 등 감소 원인

20~29세 연령층 고용 부진이 고용보험 가입자 추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0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3만2000명(-1.3%) 줄어든 24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2개월째 감소세다.

20대 가입자 수 내림세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소매,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보건복지분야 등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타 연령대에서는 1년 전보다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60세 이상이 2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도 전년동월 대비로 8.8%에 달했다. 이어 50대 10만 명, 30대 7만3000명, 40대 2000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8만5000명(2.2%) 늘어난 850만3000명, 여자가 15만7000명(2.4%) 늘어난 677만8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중 40.6%(13만9000명)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2021년 이후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고용허가제 인원을 확대하면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 증가분은 20만3000명에 머

물렀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의 89%가 집중된 제조업 분야는 내국인 가입이 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2300명 늘어났다. 또 제조업(900명), 정보통신업(700명), 전문과학업(6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56만6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3만1000명(5.9%)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9104억 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915억 원(11.2%)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은 160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7000원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폴리텍대 포항캠퍼스에 재학 중인 임예원 씨가 가스팅스텐아크용접(GTAW) 실습을 하고 있다.

/폴리텍

폴리텍대학, 다문화가족 맞춤형 직업훈련

다문화 청년 직업훈련과정 추가 편성

한국폴리텍대학이 13일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지역 캠퍼스에 18세 이상 다문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폴리텍은 "다문화 청년의 니즈를 반영해 진로 교육 등 특화 교양 과정을 운영하겠다"며 "중도입국 자녀가 국내 출생 자녀에 비해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한국어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리텍은 그간 충북 제천에 위치한 다솜고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을 제공해

왔다. 2023학년도부터는 직업훈련과정의 입학 자격을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까지 넓혔다. 2024학년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가산점(5%)을 신설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중도입국 자녀, 결혼 이주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

임준근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목전에 뒀다"며 "다문화가족이 직업훈련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성장 단계별로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aT, 태국서 'K-씨푸드' 2400만弗 수출상담 성과

'태국 K-박람회' 참가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태국 K-박람회'에 참가해 K-씨푸드 수출상담회와 소비자 체험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콘텐츠와 함께 수산식품, 농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5개 부처가 함께 추진한 범부처 합동

박람회이다.

공사는 한국-태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하고, K-씨푸드로 아세안 한류 중심지인 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B2B 수출상담회와 B2C 소비자 체험홍보 행사를 마련했다.

9일부터 10일까지 센터라 그랜드 방콕 컨벤션센터에서 우수 수산식품 수출기업 25개사와 태국, 인도, 미얀마 등 바이어 112개사가 참여하는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해 총 257회, 24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 인기를 끌었던 김, 소금, 어육소시지, 계장 등을 중심으로 총 265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

U도 체결됐다.

이어 11일부터 12일까지는 퀸 시리 킷 국립 컨벤션센터에서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등 한류 콘텐츠 전시와 함께 김, 어묵, 대게장 등 우리 수산식품을 방문객들이 직접 맛보며 체험해볼 수 있는 종합 전시·체험관을 운영했다.

체험관에는 2만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았으며 스타셰프와 함께하는 수산물 쿠킹 배틀, 한국의 매운 어묵맛 체험, K-씨푸드 오픈키친 김밥 체험 등 한국의 다양한 수산식품을 직접 보고, 만들어 보고, 맛볼 수 있도록 다채롭게 홍보해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차상근 기자 skc8472@